

동아시아의 몰입교육

강 용 구
(공주대학교)

Kahng, Yong-Koo. (1999). Immersion education in Southeast Asia.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5, 79~101.

With the advent of the 6th and the 7th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a in Korea,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communicative perspective has been highly recommended and widely practised in that context. The aim of new approach is to enhance the students' general communication abilities in English. However, English teachers still find it very hard to improve th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since English remains to be taught as a school subject. In so far as English is taught as a school subject, students' attention is paid to the formal elements of English and the increase i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is hardly expected. Only when the students' attention is paid to the content,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est way to shift the students' attention from formal elements to content is to teach other school subjects in English, that is, English immersion education. To introduce immersion education to Korea, the two most successful examples of Singapore and Hong Kong are reviewed in terms of language policies and general practices in thei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respectively. To implement the program into Korea, extensive research on it is expected henceforth.

1. 서 언

지금까지 영어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 많은 교수법(pedagogy) 및 지도법(methodology)이 등장하여 한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도 가장 능률적인 것이라고 학자들과 교육자들 사이에 공감대(consensus)가 형성된 교수법이나 지도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제 2 언어 또는 외국어교육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반증하는 셈이라 하겠다. 물론 언어학습과 관련된 변인(variable)이 최소한 184개에 달한다 하니 교사가 이 모든 변인에 통달한 다음에나 성공적인 언어학습이 보장된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엄청난 이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드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Brown(1980)이 이와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론이나 접근법에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에 토대를 둔 교사 나름대로의 절충식 접근법(eclectic approach)을 권장하기까지 했을까. 언어교육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널리 사용되는 접근법이 없는 것이 외국어 교사들의 첫 번째 난제라면 현재 대두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두 번째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국제교류가 빈번하지 않고 교통·통신이 발전하지 못했던 때의 영어교육은 영어의 형태적 요소(formal elements)에 치중한 읽기·쓰기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나라 영어교육과정 중 1~5차에 걸쳐 나타난 바와 같이 어휘와 문법적 요소가 그 태반을 점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단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는 등의 도구적 동기를 달성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당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근래에 동서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Pax Americana)가 형성되고, 첨단 과학과 교통·통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로 멀게만 느껴졌던 세계가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변모하여 국제적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언어적으로 다른 인종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 or *lingua franca*)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사소통적 영어능력 향상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97년말 불어닥친 사상 유례없는 IMF한파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우리 경제 운용 기준(Korean standard)이 국제 수준(global standard)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국제수준에 맞는 기업운영이 이루어질 때 국제 경제력(competitiveness)을 갖게되어 국가 경제가 건실히 발전해 나간다는 데 늦은 각성은 우리 나라가 경쟁우위(competitive edge)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prerequisite)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입을 분명히 인식시켰다.

이상의 영어에 대한 일반시각의 급속한 변화는 6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종래 찾아볼 수 없던 의사소통기능이 신설되었고 또한 7차 교육과정에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까지 제시되었다. 요즘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이나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출제 문항을 살펴보아도 종전의 출제경향과는 확연히 달라져 영어의 문법과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 바야흐로 영어교육 현장에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방법, 평가 및 현장 연구가 꽃을 피우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어교육과 관련된 뜨거운 논쟁이 IMF 경제 위기의 와중에 발생했는데 그 논쟁은 소설가 북거일씨가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삼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미래의 세계화는 영어가 표준어인 세계적 가치기준(global standard)에 따라 지배되는 지구제국(global empire)으로 향해가므로 그 기준에 부합시켜 제국의 일원으로 존속하려면 생존 전략차원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단일어인 국어가 모어(mother tongue)로 업존하는 현실에서 그의 주장이 언뜻 허황되게 들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PC통신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은 일반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네티즌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네티즌들이 주로 젊은 계층으로 이루어져 여론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도 거론적이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주장에 많은 젊은 이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우리의 고정 관념에 일격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혼돈으로 특징 지을 새 천년(millennium)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강타한 IMF 충격파는 국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시각 교정을 강요한다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하여 Fouser(1998)는 우리 나라의 국민적 정서, 추진력,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추어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1970년대부터 많은 언어 교육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캐나다의 몰입 프로그램(immersion program)을 원용한 몰입학교(immersion school) 체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은 제 2 언어나 외국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서 이중언어인(bilingual)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몰입교육에서는 목표어(target language)를 가르칠 때 이를 독립된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대신 다른 교과목들을 가르칠 때 교수매체(medium of instruction)로 모국어 대신 목표어를 사용하는 교수형태를 말한다. 즉 몰입교육을 받게되면 그 표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목표어에 몰입되어(immersed) 교과 학습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것이 6~10년간 영어를 배우고도 영어 구사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이었다. 즉 상당한 수준의 의식적인 학습(learning)이 이루어졌으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습득(acquisition)이 발생되지 못한 것이다. 대다수의 언어 교육학자들은 학습자들의 관심이 형태(form)보다는 내용(content)에 기울어 질 때 습득이 발생하여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칠 때 학생들의 주의를 형태보다는 내용에 집중시키도록 조장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으나 영어가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가르쳐지는 한 위와 같은 학습형태를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통감하게 되어 쉽게 자포자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타 교과의 교과 목표 및 내용과 영어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타 교과의 교육 목표는 지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영어의 경우는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목의 편성 체제로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비유될 만큼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타 교과의 내용을 가르칠 때 교수매체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교사가 사용하는 표현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표현은 그 목적이 교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으로 의사소통의 본질에 충실한 것들이겠고 형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6·7차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중심(content-centered)의 학습인 바 몰입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학습자들의 주위가 내용에 집중되게 되어 본래의 교육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몰입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적 연구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98 유엔 통계연감에 따르면 국제 경쟁력 상위 1, 2 위를 싱가포르와 홍콩이 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두 나라가 매우 성공적인 몰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양국의 몰입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차후 우리가 지향할 몰입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II. 본 론

1. 홍콩의 몰입교육

1) 홍콩의 언어적 배경

중국 근대사에서 영국과 중국간의 협약으로 100년간 영국의 조차지로 남아있던 홍콩을 언급하지 않고는 정확한 양국 외교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1997년 홍콩의 주권(sovcreignty)이 중국에 이양되었으나 양국간의 협정(Basic Law)에 따라 향후 50년간 홍콩은 국방·외교에 관한 사항은 중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나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을 포함한 내무(internal affairs)에 자치권(autonomy)을 보장받는 홍콩 특별 행정지역(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으로 남아 있어 언어 교

육 정책 및 기획은 급작스런 변화를 겪지 않고 종전의 체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초기에 영연방(Common Wealth)의 교육체도를 거의 그대로 따랐던 홍콩의 교육체제는 중국으로의 주권 이양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74년 중국어가 공용어로 인정받았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할 것은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광둥성(廣東省)이고 광둥성 출신 중국인들이 홍콩 주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이들이 중국의 표준어 또는 보통화(普通話, Mandarin Chinese)를 사용하지 않고 광둥어(Cantonese Chinese)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홍콩의 6백만 인구 중 약 98%가 광둥어를 구사하는 중국인들인데 Luke와 Richards(1982)가 지적한대로 과거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려 들지 않았고 이주민들(expatriates) 역시 중국어를 배우려 들지 않아 과거의 홍콩은 이중언어주의(bilingualism) 지역이라기 보다는 중국어와 영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독특한 2가지 언어지대(diglossia)로 남아있다. 그러나 홍콩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정보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홍콩은 이중언어 도시로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다. 1993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홍콩 주민의 70%가 자신들을 이중언어인(bilingual in Chinese & English)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1997년 주권반환을 눈앞에 두고 중·상류층, 특히 30대 미만의 홍콩 주민들이 보통화(Mandarin Chinese)를 배우기 시작하여 홍콩을 삼중언어주의(trilingualism)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인구를 점한 광둥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 홍콩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영어와 접하기란 기대난이라 하겠다.

2) 홍콩의 언어교육 정책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래로 홍콩 정정이 펼쳐온 언어교육 정책은 일관된 것이었다. 영어를 교수 매체로 교육받는 학생들은 극소수였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중국어로 교육받았다. 교수매체(media of instruction)의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초기에 각 학교에서의 언어교육 양태는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지도층에 들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점차로 많은 중등학교

에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몰입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를 교수매체로 하는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대부분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정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영어 수준 또한 만족스럽지 못했으나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사 교육에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 그 결과 잠정적인 해결 방안으로 교사들이 영어와 광둥어를 혼합한 형태의 혼합어(Mix)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것은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나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가 영어를 교수 매체로 몰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경주한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쳐지는 영어 지도방안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수준 향상을 꾀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담당자들의 생각은 만약 영어 지도 수준이 향상되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어 중국어가 교수 매체인 종전의 수업형태로 돌아가도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불평이 없으리란 것이었다. 교육당국의 실무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1990)를 작성한 뒤에서야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은 교과목으로서의 영어교육이 아닌 교수 매체로 영어를 사용하는 몰입교육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책은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강력한 성격을 띠어 혼합형 교수법이 높은 영어 수준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몰입학교는 중국어와 중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가르칠 때 영어를 교수 매체로 사용할 것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3) 연결 프로그램(bridge program)

중등학교부터 교수 매체를 중국어에서 영어로 갑작스럽게 바꾸어 중등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향후 전체 국민의 30%를 이중언어인으로 육성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홍콩은 급속한 변화의 충격과를 최소화하고 몰입교육에 수월성을 부여하기 위해 연결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로 배운 교과 내용을 영어로 집중 지도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제 경쟁력의 치열한 경쟁속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영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

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몰입형 중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연결 프로그램 선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중국어, 영어, 종합적 학력 세 분야의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바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가장 큰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을 스스로 마련토록 하려는데 있다.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6개 과목의 학습 내용은 중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명기된 교과 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이다. 이 중 특기할 사항은 연결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대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배려가 교과 내용 편성에 반영되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에서 영어를 학습한다는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 문화권 요소를 학습 내용 전반에 도입하여 보다 강력한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가 유발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연결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 교과목(school subject)으로서의 영어의 위상이다. 홍콩은 교과목으로 영어가 가르쳐지는 한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이 일정한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프로그램에 영어를 교과목으로 선정 할지의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형태(form)에 치중한 문법적 요소들이 범람하는 영어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이라면 간단한 문제이겠지만 영어의 숙달성(proficiency)을 향상시킬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종전과는 성격이 판이한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홍콩 교육당국은 영어 교과 내용에 수록할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로 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관심이 큰 분야가 지역 인사(local personality)나 사건(event)들로 드러나 위 인물들과의 인터뷰 위주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인물과 인터뷰 할 때의 질문은 가급적 해당 교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기 위해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토록 한 점이다.

4) 몰입학교의 교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4년 홍콩 정부가 중등학교 단계부터 선별적인 몰입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이중언어인 수준으로까지 끌

어 울리려한 과감한 시도는 맨 처음 큰 환영을 받고 힘을 얻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1997년 주권이 중국으로 이양된 뒤부터 홍콩 주민들의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물론 향후 50년간 교육정책을 비롯한 내정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자치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으나 변화된 정치 상황은 내정을 펼쳐 나갈 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 속에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어 나갈지 예의 주시하며 언어 정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영국인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에 입안되어 실시되고 있는 몰입 프로그램이 중국인이 수장이고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홍콩에서 차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몰입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의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1) 상호작용과 교사의 언어

Johnson(1983)은 몰입학교에서 15개 교과 지도교사가 교수매체로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한 결과로 영어와 광동어 그리고 혼합어(영어+광동어)의 사용 비율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가장 유능하고 동기 유발이 잘 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조차 교사들은 영어를 평균 50%미만 사용하고 있었고 능력이 더 뛰지고 동기 유발이 덜 된 학교에서의 그 비중은 놀랍게도 10%가 채 되지 못했다. 극단적인 경우 교사가 사용하는 영어 표현은 단지 수업을 시작할 때의 "Good morning class."와 수업이 끝날 때의 "Good bye, class."였다. 대부분의 교과 담당교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문제점으로 보지 않고 지극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학생들의 낮은 영어 수준과 교수되어야 할 교과 내용의 양을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와 학생들의 구두활동이 지배적인 교과목에서는 광동어와 혼합어가 주류를 이루었고 교과서, 판서, 쓰기 활동이 복합되어 진행되는 과목의 수업을 할 때 교과서를 다룰 때는 영어로, 설명을 할 때에는 광동어와 혼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영어는 학생들의 주의력을 교과서로 광동어는 교사로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신호처럼 사용되었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 영어보다는 광동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대체로 광동어를 사용했다. 영어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는 학생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명령이거나 Yes/No형 질문 또는 단답형의 답을 유도하는 질문 등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영어로 답할 수 있는 유형들의 경우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답은 개별적으로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답의 내용도 하나의 어휘나 어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이상의 영어로 된 답이 요구하는 경우 학생들의 침묵이 이어져 교사는 답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화된 질문을 다시 해야만 했고 긴 답은 답을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거나 교과서나 판서한 내용에 의존하여 답을 찾을 수 있을 때만 가능했다.

(2) 교재지도

각 교과목의 지도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반 시험(public examination)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등학교 초급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 부담을 줄이고 담화(discourse)를 단문으로 축소화시키며 그림, 차트(chart), 도표 등에 의존하는 등의 단순화 경향(tendency to simplify)을 보인다. 고급 단계에서는 교사들이 종종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 보조자료를 유인물로 배포하고 학생들 또한 상업적으로 제작된 참고자료를 구입하여 시험에 대비하는데 이 자료들을 영어가 아닌 광동어로 설명하고 지도하여 시험준비를 시키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교과서는 광동어로 번역되어 지도되지 않으나 사전에 교과내용이 지도되어 능력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영어로 된 교과서를 읽을 때 이미 교재 내용을 잘 다룰 만큼 숙지하고 있다.

많은 내용이 담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광동어나 혼합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견해나 교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학생들이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가를 이해할 수 있다. Lai(1991)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교육 6년간 영어를 주요 과목으로 배운 중등학교 1년(form 1)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가장 기초적인 독본을 읽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은 홍콩 몰입교육의 어려운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들이 초등 6년간 교과목으로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개별단어를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Johnson과 Yau(1996)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읽기 능력은 개별 어휘를 번역하여

이해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즉 글에 나타난 내용어(content word)의 중국어 상용어(equivalent)를 찾아내어 이들 중심의 의미를 구성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크게 의존하는 것은 이중언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인데 문맥에 적절한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여 나름대로 구성한 의미가 본래 의도되었던 것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3) 학생들의 표현능력(productive skills)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영어, 중국어, 그리고 혼합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양하나 교재와 관련되어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영어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으며 표현의 용이성과 자유로운 개념 파악의 수월성과 관련하여 광동어나 혼합어의 사용 빈도가 컸으며 영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달성되는 장기적 이득은 단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학생들이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종의 보수 교육 형태로 3개월간 진행되는 연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영어 표현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었다고 전제하고 중등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언어 능력 개발은 단기적인 학습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도 면밀한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될 때만이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학교의 몰입프로그램에서 짝짓기 활동(pair work)나 단체 활동(group work)의 대부분이 광동어로 진행되어 학급 전체나 교사에게 보고할 때만 영어가 사용되는 현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하기 능력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 공히 이 부분의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쓴 내용을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쓰기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지침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다. 그 결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쓴 내용을 수정하고 채점하는 악몽을 감수하거나 아예 쓰기 과제를 회피한다. 대부분 교사들이 일정 수준의 길이가 있는 쓰기 과제는 포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쓰기 과제를 할 때 그들은 교과서, 노트한 내용, 판서 내용 또는 암기한 내용 등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어휘와 요약 진술을 암기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겐 쓰기 활동을 위한 중요한 생존 전략(survival strategy)이라 하겠다. 이와 같

은 생존 전략은 요약문 쓰기까지 이어져 종속문이나 삽입문 등이 들어간 복문의 사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교사들도 이를 권장하는 형편이다. 또한 최근의 언어 학습 동향을 반영한 듯 영어의 문법 체제에 맞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교사가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4) 평가

교실내의 수업 활동 중 광동어와 혼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영어 숙달 시험이나 교과 내용시험에 드러나야만 할텐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 시험에 등장하는 문항들이 말하고 쓰는 능력(production) 보다는 인지력(recognition)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교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교과 내용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영어의 숙달도를 중시할 것이냐 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모두 중시하다 보면 방대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는 것 이외에 영어 구사력을 지도해야 하는 과제가 부가되어 교과 과정상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이 둘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어의 숙달도 측면은 가급적 무시한 채 교과 내용에 치중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5) 언어능력 및 교과 성취도

교사들은 대체로 Hirvela와 Law(1991)의 연구 결과에 공감하고 있어 학생들의 영어·중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자료를 이용한 Elley(1992)의 연구에 따르면 홍콩 학생들의 중국어 읽기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매체가 중국어에서 영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평균치에 비교해 볼 때 홍콩 학생들의 중국어 읽기 능력은 초등학교 4학년(10세)에 비해 중등학교 3학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매체가 바뀐 뒤에도 중국어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언어 해득력(literacy)은 학교 교육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의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문자로 된 중국어와 학교 밖에서 끊임없이 대하게 되는 중국어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하여튼 교수 매체가 바뀌었음에도 중국어 능력이 퇴보하지 않고 향상되어 나간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몰입교육이 확대되어 나가면서 그 대상 학생 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영어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반면 상위권 학생들의 영어 능력은 변함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중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을 비교해 보면 Johnson과 Cheung (1992, 1995)이 지적한 대로 영어능력이 낮은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이냐에 관계없이 중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항상 높았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이 향후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Holbrook(1989), Brimer와 Griffin(1985)의 연구에 따르면 홍콩 학생들은 특히 중등 상급학년에서 과학 과목의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고 수학과목은 최상위권의 성취도를 보였다. 과학이나 수학 이외의 보다 언어 의존적인 과목들의 국제적 비교 연구에서 홍콩이 참여하지 않아 이들 과목들의 교육적 성취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홍콩 학생들은 교과목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표현능력에 있어, 특히 영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 싱가포르의 몰입교육

1) 싱가포르의 언어교육

싱가포르의 교육계도는 각기 다른 언어를 교수매체로 사용하는 4개의 독립적인 학교 체제에서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4개의 다른 언어가 국가적 교육 체제 속에 정착하는 변화를 겪어왔다. Kuo와 Jernudd(1994), Soon(1988)이 지적한 대로 보다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교수매체로 사용하는 통일된 국가체제가 도입되었다.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교수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이 정책의 변경은 취학 전 교육기관(preschool)에 큰 영향을 미쳐 언어를 혼용하는 것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혼돈을 가져온다는 생각에서 교사들이 점차로 영어를 교수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사회에서 요구하고 전면 몰입교육(total immersion)과 목표어에 일찍이 노출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높은 수준의 영어 숙달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풍부한 언어적 전통을 가진 안정된 범세계적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199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3백만 인구 중 중국계가 76.3%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수 민족으로 말레이(Malay)계가 15%, 인도계가 6.4%, 그리고 여타 소수 민족이 2.3%를 점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 분포를 반영하듯 각 언어의 위상도 독특하여 말레이어가 국어(national language)이며 말레이어, 영어, 보통화(Mandarin Chinese)와 타밀어(Tamil)가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은 의무교육도 무상교육도 아니다. 그러나 거의 전 학동(school children)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1990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동의 96.5%가 교육부 관장하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 외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립교육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다. 정규교육은 6세 때 시작되며 중등교육은 16세 까지 끝난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취학 전 교육기관까지도 영어(1st language)가 교수매체로 사용되며 영어 외에 공식어(2nd languages)중 하나를 학습하게 되는데 보통화, 말레이어 또는 타밀어를 배우게 된다. 아동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제 2 언어는 부모의 혈통에 따른 민족 공용어여서 중국계는 보통화를, 말레이계는 말레이어를, 타밀 인도계는 타밀어를 배운다.

싱가포르 교육체제의 중점목표는 언어를 숙달시키는 것이어서 중요한 시기의 분류시험(streaming examination)과목 중 하나로 제 2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과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이 유보된다. 초등 4, 초등 6, 그리고 중등 4학년 때 분류시험이 시행되는데 초등 4학년 때 실시되는 분류시험 과목은 영어, 제 2 언어, 그리고 수학이다. 이 시험 결과로 두 언어(영어와 제 2 언어)가 학습될 학문적 수준과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분류되어 교육 받는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칠 때 아동들이 두 번째로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를 초등학교 졸업고사(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라 칭한다. 이 때의 시험과목은 영어, 제 2 언어, 수학, 그리고 과학이

며 약 90%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 합격한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아동들이 받을 교육의 유형과 진학할 학교가 결정된다. 학문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중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치면 'O'수준("O" Levels)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싱가포르 교육부와 영국고사처(examination boards)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학문적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O'수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또는 그 대신 'N' 수준("N" Levels)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학문적 자질이 있는 학생들은 중등학교를 마치고 전문대(junior college)나 대입센터(preuniversity center)에 입학하여 2~3년 후 'A'수준("A" Levels)시험을 치르게 되며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1966년 의무적 이중 언어주의가 도입된 이래로 다 언어 사회인 싱가포르 국민은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축 언어인 영어와 동일 민족간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모어의 2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sufficient command)을 갖추어야 했다. 1990년의 정부 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46%가 2개 언어구사능력(biliterate)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중 언어주의는 이제 싱가포르의 생활양식이 되어버렸다. 영어가 이처럼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언어적으로 다양한 이질 민족 집단간의 간격을 메우고 이 민족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유일한 언어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영어가 국제통상, 선진 기술 및 과학의 입수, 그리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경쟁력있고 가치있는 언어라고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중 언어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보통화와 영어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유형을 바꾸게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어의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는 중국인 사회를 언어적으로 통일시키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보통화 말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보통화를 사용토록 권장한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이제 보통화가 중국계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상거래에서 사용되던 비율도 1979년 1%에서 1991년 24%로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가 하게될 중요한 역할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 당

국의 확산과 장려책은 그 결실을 맺어 영어를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1980년 11.6%에서 1990년 20.3%로 크게 증가했다(Gopinathan, 1994).

2) 언어정책의 변화

싱가포르 정부의 야심찬 이중 언어정책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본래의 목표가 쉽사리 도달될 성격이 아니어서 제대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언어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교육부가 제시한 새로운 권장사항이 초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의 전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Goh(1979)는 보고서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언어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토대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분류시험을 통하여 3가지 유형의 언어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유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언어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1 언어 수준의 제 2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제 3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유형은 학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제 1 언어로 가르치되 모어의 경우는 기능적인 지식만 갖추도록 하며, 마지막 유형은 언어 능력과 학문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매체가 영어인 수업을 계속 받게 하되 그들의 모어는 최소한의 구두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고사에서 상위 8%를 점하는 우수 학생들의 영어와 보통화 숙달도를 공히 제 1 언어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특수 학교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자녀들의 보통화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계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1980년 9개의 지역 중등학교가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특별 재정 지원을 받아 이중 언어교육기관으로 탈바꿈했고 1989년에는 이 변화의 물결이 초등교육기관에 흘러가 종자학교(seed school)로 알려진 10개의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나갔는데 이 초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영어와 중국어를 제 1 언어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취학 전 5세의 아동을 위한 예비 언어 프로그램이 위에서 언급한 종자학교에 마련되어 영어와 모어의 말하기·듣기 능력을 기초부터 확실히 구축하려 했으

나 유감스럽게도 단명하여 1992년 폐쇄되고 말았다.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두 언어능력의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제도상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을 예로 들면 영어를 압도적으로 구사하는 배경을 가져 영어 구사력은 뛰어나나 보통화의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중국계 학생들이다. 1989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입학 조건을 변화시켜 제 2 언어의 'A'수준("A" Levels)이하 학생들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1978년 도입된 분류정책(streaming policy)은 특히 초등학교 8세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히 우려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영어를 배우는 중국계 아동과 영어로 교육을 받은 부모를 가진 보통화를 배워야만 하는 중국계 아동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이중 언어정책에 불만을 품어 호주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까지 했다. 1991년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분류시험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연기했으나 여전히 언어 능력에 기초를 둔 분류정책을 계속해 갔다. 중국어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층과 중국어 교사연합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자 1992년 새로운 분류정책에 큰 수정이 가해졌다. 변경된 정책의 요체는 초등학교에서 모어를 제 1 언어로 가르치고 과학과 수학을 지도할 때 모어를 교수매체로 채택한 선택적 과정을 도입한 것이었다.

모어를 새롭게 강조한 교육정책의 도입은 통일된 국립학교체제를 확립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에 상반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모어를 제 1 언어로 채택한 새로운 선택적 프로그램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도 거의 없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언어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차후 싱가포르 언어정책에 어떤 변화가 불어닥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겠으나 중국 본토가 점차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보통화가 싱가포르 중국계 사회에서 현재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쉽게 예견된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언어정책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영어를 제 1 언어로 교육시키고 있어 몰입교

육 단계를 넘어선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하겠다. 따라서 본격적인 몰입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취학 전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취학 전 교육시설

싱가포르 아동은 3세 때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취학 전 교육기관은 3세 아동을 위한 탁아반(nursery class)과 4~6세 아동을 위한 유치반(kindergarten class)을 두고 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싱가포르정부의 지원책은 여성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하다고 표현할 만큼 크게 권장되고 있어 대다수의 아동들이 취학 전 교육시설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거의 정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Ko와 Ho(1992)의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주의와 관련된 교육정책과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맞물려 취학 전 교육기관은 정규 교과 학습에 필수적인 학습기능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이들 교육기관에서 잘 보살펴지고 있거나 잘 놀고 있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아동들의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발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하며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영어와 제 2 언어를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영어와 제 2 언어 능력에 따라 자녀들이 분리되는 것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기대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분리시험이 영어와 제 2 언어 성취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한 학부모들의 취학 전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진로와 사회진출의 성패가 분류시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미래가 취학 전 교육기관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 교사진, 그리고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기관에 자녀들을 보내려한다. 이는 학비가 국립에 비해 비싸다해도 사립 취학 전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립 교육기관의 비싼 학비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있는 서민들의 자녀가 입학할 엄두를 못 내게 한다. 그 결

과로 영어 몰입교육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자녀가 이층으로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사립이 아닌 교육기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족 수가 많고 부모의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가정 환경이나 학습 환경이 열악하다. 더욱이 이러한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닌 보통화, 중국어 방언 중의 하나, 말레이어 또는 타밀어이다.

싱가포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중 언어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취학 전 교육기관의 몰입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인종에 관계없이 영어 구사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영어로 상호작용을 하려는 경향은 이들이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해서는 조기 영어 몰입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인 듯하다. 제한된 영어능력을 가진 학부모들까지도 자녀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영어 숙달도가 성공적인 사회적 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개인 교사(tutor)를 고용하여 개인교습을 시키거나 언어와 관련된 회화, 드라마 코스에 자녀들을 등록시킨다. 직장이 있는 어머니들에게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이 부유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괴리감을 다소 완화시켜준다.

4) 취학 전 학교의 교육과정

취학 전 학교는 두 언어를 익히고 능숙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놀이자료 및 기구, 책, 그리고 쓰기 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다.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및 물건들은 아동들의 시각 어휘(sight vocabulary)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두 언어로 쓰여져 전시되며 다양한 색채의 도표도 목표 언어로 쓰여져 사용된다. 주로 언어과목과 수학이 교과목으로 가르쳐지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아동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하기, 율동, 그림 그리기, 쓰기, 또는 요리 만들기 같은 재미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영어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육외 놀이, 또는 연극 공연 등의 기본 수학 개념을 익히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또래 집단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연습할 장을 제공한다.

취학 전 아동의 약 70%가 싱가포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 PAP)에 의해 조직되고 PAP 사회재단 (PAP Community Foundation : PCF)의 관장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교육기관은 공통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아동 활동 중심의 학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치부 1년(K1)과정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유치부 2년 (K2) 과정은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에 중점을 둔다(Quah et al., 1993). 언어 기능 발달을 위한 교과목은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고 주제별로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언어의 의사소통기능에 중점을 둔 언어교수법이나 주제별 통합된 교육과정을 채택한 것은 초·중등 학교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사립 교육기관과 비사립 교육기관을 비교해 보면 사립 교육기관이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더욱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면 비사립 교육기관은 여전히 구조와 형태에 치중한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은 탄력성이 있고 전 교과목에 걸쳐 개념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지도되며 개방형 질문,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한 교육 활동, 충분한 학습 보조자료의 활용이 수업의 주류를 이루며 교사와 학생사이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려 교사 중심이라기 보다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비사립 교육기관은 종전의 병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대폭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III. 결어 및 제언

지금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의 몰입교육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양국이 세계 경쟁력 최상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하겠다. 서언에서 지적한 대로 천연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중단 없는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세계 속에 우리의 확고한 위상을 마련하려면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모든 국가 정책의 기초가 국제경쟁력이 되고 이를 강력하고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만이 국제 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만약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추진한다면 제 2의 IMF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다른 면이 많고 언어환경도 우리와

다르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향후 발전 모델로 이들을 생각하는 것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이들의 펴은 정책을 잘 살펴보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양국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어교육을 채택하여 취학 전, 초등, 그리고 중등교육에 몰입교육을 도입한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나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으며 언어교육 특히 국제어인 영어능력 향상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펴은 각종 교육시책을 살펴보면 거의 필사적이라 하겠는데 이에 반하여 우리 교육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영어교육정책은 우물안 개구리 식의 위기를 위기로 실감하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라 하겠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하루 속히 영어 몰입 교육이 유리나라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영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교육행태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패한 사례가 증명하듯 도로에 불과한 일이라 하겠다. 단적으로 말하여 영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한 학생들의 주의를 교과 내용보다는 영어의 형태에 집중되어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없다. 교과 내용이 영어로 가르쳐질 때만이 학생들이 교과 내용에 집중하게 되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일찍 목표어를 배울수록 목표어를 습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언어 습득 이론을 실천하려면 우선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는 배우도록 되어있는 현 교육정책은 더욱 하향 조정되어 초등학교 1학년부턴 영어를 배우도록 해야만 할 것이며 영어 몰입 교육의 출발점도 이에 맞닿추어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즉각 시행하는 것은 큰 무리를 수반케 할 것이다. 장기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교재 개발, 교사 교육 또는 훈련, 교육 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영어교육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이 때 영어 몰입교육 전반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야만 하겠다.

참 고 문 헌

- Brimer, M. A., & Griffin, P. (1985). *Mathematics achievement in Hong Kong secondary schools*. Hong Kong: Center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ng Kong.
- Education Commission. (1990). *Education Commission Report No. 4*. Hong Kong: Hong Kong Government Printer.
- Education Statistics Digest. (1990).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 Elley, W. B. (1992). *How in the world do students read ?* The Hagu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Fouser, R. J. (1998). English as Korea's official language? August 12, 1998, P. 6. *Korea Herald*.
- Goh, K. S. (1979). *Report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1978*,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 Gopinathan, S. (1994) Language policy changes 1978 - 1992: Politics and policy. In S. Gopinathan, A. Pakir, Ho Wah Kam, & W. Saravanan (Eds), *Language education and society in Singapore*. Singapore: Times Educational Press. 65-91.
- Hirvela, A., & Law, E. (1991). A survey of local English teachers' attitudes towards English and E.L.T. *Institute of Language in Education Journal*, 8, 25-38.
- Holbrook, J. (1989). *Science education in Hong Kong secondary schools*. Hong Kong: Center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ng Kong.
- Johnson, R. K. (1983). Bilingual switching strategies: A study of the modes of teacher-talk in bilingual secondary school classrooms in Hong Kong. *Language Learning and Communication*, 2(3), 267-285.
- Johnson, R. K., & Cheung, Y. S. (1992). Reading literacy in Hong Kong. In N. Bird & J. Morris (Eds), *QUILT and QUILL: Achieving and*

- maintaining quality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ong Kong: Institute of Language in Education. 408 - 419.
- Johnson, R. K. & Yau, A. S. N. (1996). Coping with second language texts: the development of lexically-based reading strategies. In D. Watkins & J. Biggs (Eds), *The Chinese learner: Cultural, psychological and contextual influences*. Hong Kong; Melbourne: The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Ltd. 123-140.
- Ko, P. S., & Ho, W. K. (Eds.) (1992). *Growing up in Singapore-the preschool years*. Singapore: Longman.
- Kuo, C. Y., & Jernudd, B. H. (1994). Balancing macro-and micro-sociolinguistic perspectives in language management: The case of Singapore. In S. Gopinathan, A. Pakir, Ho Wah Kam, & W. Saravanan (Eds.), *Language education and society in Singapore*. Singapore: Times Educational Press. 25-46.
- Lai, E. F. K. (1991). Extensive Reading as input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Unpublished Ph.D. thesis.
- Quah, M. L., Gopinathan, S., & Chang, A. S. C. (1993). A review of practice and research in education for all in Singapore. A country report submitted to the Southeast Asian Research Review and Advisory Group (SEARRAG).
- Soon, T. W. (1988). *Singapore's new education system: Education reform for national development*. Singapore: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